



네이버 플러스(이사장 주찬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팰리세이즈파크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에 동참했다. 왼쪽부터 주찬연 이사장, 차영자 이사, 크리스정 시장, 박재관 팀장 (사진제공=복음뉴스)

네이버플러스, 코로나19 사랑나눔 동참

네이버 플러스(이사장 주찬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팰리세이즈파크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에 동참했다.

네이버 플러스의 주찬연 이사장, 차영자 이사, 박재관 핸디맨 사역팀장 등 3명은 14일 크리스정 팰팍 시장을 만나 1,0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네이버 플러스에서 기탁한 후원금은 팰팍 타운이 진행 중에 있는 'Our Community Dinner Table' 을 위해 쓰이게 된다.

크리스정 팰팍 시장과 네이버 플러스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시장 사무실이 아닌 시청 건물 밖에서 이루어졌다. 시청 건물에 코로나 19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크리스정 팰팍 시장은 "하루 200명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나누

어 드리는 일을 시작했다. 이 일을 'Our Community Dinner Table' 이라고 부르는데, 팰팍에 있는 반찬 가게들과 후원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배달도 해 드린다. 이 일을 위하여 하루에 3,000달러가 필요한데 네이버 플러스가 이 일에 동참해 주어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중단 없이 도시락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한인 사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네이버 플러스의 이사장 주찬연 장로는 "네이버 플러스의 이름은 이웃(네이버)에게 도움(플러스)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네이버 플러스가 지금까지도 커

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역을 펼쳐 왔지만, 앞으로 더욱 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겠다. 사회봉사, 컴퓨터 교육,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해서도 필요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전화 201-461-0909 또는 이메일 neighborplus@gmail.com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며 한인 사회가 네이버 플러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네이버 플러스 주소:
265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전화: 201-461-0909
△홈페이지 주소
www.neighborplus.org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